

# 한국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김종덕\* · 허미영\*\*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 Environmentally Oriented Women Farmers' Problems and Strategies coping with them in Korea

Kim, Jong-Duk\* · Huh, Mee-Young\*\*

\*Dept.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 적 요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환경농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환경농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안고 있는 농업생산에 따른 어려움이나 농산물 유통에 따른 어려움 이외에 농촌의 노동력부족과 고된 노동강도 그리고 자녀교육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중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노동력 부족과 고된 노동강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에 따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을 환경농가의 주류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함을 지적하였다. 농가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며, 농사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여성농업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농가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식차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여성들이 경험하는 지역에 기반한 지식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체제하에서 외국의 농산물 수입은 불가피하며, 값싼 농산물의 유입은 우리 농산물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그동안 농정당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해 왔는데, 농업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관행농업의 생산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의 재생산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늘어가고 있으며, 젊은 노동력의 이농 및 탈농,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김종덕, 200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활로

를 찾아가는 대안농업의 실천 및 운동도 지속적으로 소개되며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고, 그 결과로 정부가 1990년 중반부터 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비가 매년 30-50%정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2).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WTO체제에서 관행농가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관행농가로 하여금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를 완화시키며, 농민과 소비자에게 식량안전성과 생산기반확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환경농업실천과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환경농업의 실천과정에서 주된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과중한 노동부담이다. 환경농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토양을 살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등 관행농업에 비하여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게 된다. 잔손질이 많이 가는 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의 특성상 여성의 섬세한 손길과 자연친화적인 특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여성의 신념과 노동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환경농업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농가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것인가는 농가의 여성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농업주중사자로서 여성의 비중이 52.5%이지만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호철 외, 2002). 농림부(1999)조사에 의하면, 전체농가여성의 89.4%가 이농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영농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농업생산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농가노동력의 재생산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환경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산성분석이나 환경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주류였다. 최근에 와서야 환경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여성농업인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잔여범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위기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여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완화시켜 주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환경농업과 성 이슈

환경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환경농업이 여성적인 특성과 상당한 친근성을 강조하는 에코 페미니즘입장(Maria mies & Vandana Shiva, 1993)과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있다. 선구적인 연구로 Chiappe(1994)를 들 수 있다. 그녀는 1994년 미네소타주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와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여성적 특징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담하는 일의 중요성, 농장에서 여성의 헌신과 참여에 대한 여성자신의 인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관행농가여성들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게 유도하거나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들만의 조직네트워크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른 농민들과 유사한 목적과 관심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여성의 네트워크는 여성들에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제공한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매커니즘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 조직을 통하여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Land Stewardship Project나 Sustainable Farming Association은 여성농민들에게 워크숍이나 프리젠테이션 등의 이벤트를 통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와준다(Chiappe, 1994:257). 미네소타지역의 Land Stewardship Project의 회원과 운영진은 커뮤니티센터나 학교, 병원, 식당에 지역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각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가치나 태도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에서 Chiappe와 Flora(1998)는 대안적 농업패러다임이 대안농업운동을 하는 남성지도자에 의해 정의되었으므로 남성적 관점을 반영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용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조직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에서 여성농업인에도 똑같이 Beus와 Dunlap(1990, 1991)의 대안적 농업패러다임의 6가지 요소인 독립성, 탈집중화, 지역사회, 자연과의 조화, 다양성, 삼가 등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농업인에게는 이외에 가족생활의 질과 정신성 요소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행농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족구성들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Colman & Ebert, 1984; Fink, 1986; Jellison, 1993). 이런 관행농업의 특징은 농장일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대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가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가족동반휴가와 같은 활동을 증가시킨다(Chiappe & Flora, 1998: 388). 부부가 같이 일할 시간이 많고,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노동자체가 지겹지 않고 재미있으며 대체로 제철에 맞게 곡물을 생산함으로써 노동강도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족생활과 가족생활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래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무엇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서 가족의 건강과 환경의 보존을 실천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관행농업보

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여성들은 그들 가족의 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경작규모의 감소를 통해서 실현된다. 특히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자유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이다(Chiappe & Flora, 1998). 하지만 이런 특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경농기여성의 가족생활의 질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시설재배의 여부이다. 대체로 시설재배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농한기에는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환경농업을 하더라도 시설재배를 하면 노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악화와 여가시간의 제한 등으로 가족생활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영혼성 내지 정신성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으로부터 받게 되는 감동과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영혼성의 가치와 신념은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심오한 경외, 그들을 보존하려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한다(Chiappe & Flora, 1998)

Baker(1999)는 세계화된 농업과 지역농업을 비교하고 지역농업이 친환경적이며,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여성이 대안적 농업체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다중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운동과정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환경농민과 관행농민간에 차이가 있다(Peter, Mayerfeld, Jamagin, & Baner, 2000). 관행농업집단인 Non Practical Farmers of Iowa(Non PFI)의 경우에는 '독백적 남성성(monologic masculinity)'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엄격하고 양극화된 성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반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Practical

Farmers of Iowa(PFI) 농민의 경우에는 '대화적 남성성(dialogic masculinity)' 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연에 대한 통제욕구가 적으며, 더 큰 사회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양자를 비교해 본 결과, 대화적 남성성이 대안적 농업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농업네트워크가 연구, 세미나, 워크샵, 현지연구를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농업단체에 속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과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사에 필요한 지식교육, 의식교육, 정보교환,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 및 전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III.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농가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이다. 문헌연구는 정부기관 자료와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유기농업단체인 정농회회원농가, 팔당유기농업운동본부, 북한강유기농업운동본부, 장성 한마음공동체, 한국유기농업협회, 경남 밀양 북부면 딸기작목반, 경남 진주 친환경농산물유통협회, 경남 의령지역 등에 소속한 농가여성과 개별농가단위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여성들이다. 면접대상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환경농업기간도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27년 동안 유기농업을 실천해 온 농가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심층면접자료는 연구자가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방문하거나 환경농업단체의 여성연수회(2001년-2003)에 참가하여 얻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귀농한 농가여성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 면접하였고, 일부는 여성연수회를 개최하는 동안 여성의 삶나누기와 분과토의시간에 참여하여 여성들의 당면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채록하였다. 심층면접의 주된 내용은 환경농업을

하게 된 동기, 경작작물, 노동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중, 시설재배여부와 노동의 강도, 판로확보의 문제와 부부간의 노동분담, 자녀교육을 포함한 가족관계 및 부부의 역할갈등,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 등이었다.

#### 2.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 가. 환경농가 여성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일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영농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환경농업의 경우에 과중한 노동과 판매처 확보가 29.5%로 비중이 같았고, 농사일과 가사일 병행부담이 18.5%로 그 다음이었다. 이 세 가지가 약 80%를 차지하였다. 반면, 관행농업의 경우에는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과중한 노동으로 32.8%를 차지하였다. 이 두 항목이 약 66%를 차지하였다.

표 1. 농업경영상의 어려운 일

구분	환경농업	관행농업	전체
과중한 노동	51(29.5)	58(32.8)	109(31.1)
외부노동력확보	15(8.7)	21(11.9)	36(10.3)
판매처확보	51(29.5)	23(13.0)	74(21.1)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	32(18.5)	60(33.9)	92(26.3)
농업자재확보	8(4.6)	3(1.7)	11(3.1)
정부지원미비	10(5.8)	8(4.5)	18(5.1)
기타	6(3.5)	4(2.3)	10(2.9)
계	173(100)	177(100)	350(100)

$\chi^2=23.418$ ;  $df=6$ ;  $p<.001$ ,  
자료: 허미영, 2002구분

##### 1)노동문제

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하여 노동량이 더 많이 요구된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농업인에게 더 힘들다. 게다가 농촌에서의 노동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적지 않은

노동강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잡초와 병충해제거 등 잔손질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특성 때문에 정성을 쏟아야 농사가 제대로 된다.

보통 농사보다 생약제제로 병을 예방하자니 농약 한번 치기보다 7-8번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물빠짐이 좋은 땅은 비닐하우스를 여름에 벗기지만 저희 땅은 찰흙땅이라 한번 비를 맞으면 보름이나 늦어집니다. 그것보다 딸기 묘종이 살아서 숨을 쉴 때면 풀이 많이 올라오는데, 논골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 장화를 신고 엉덩이에는 의자를 받쳐가면서 다른 밭의 서너배 힘든 일을 합니다.(...) 새 비닐을 씌우고 딸기 옆에 난 풀을 다 뽑았으며 한 굴통에 7-8천 포기의 묘종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레 혼자서 잎을 깔기고 있습니다(경남 밀양시 공00씨).

위 사례 여성의 경우에, 2003년 추가 면접에서 노동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는 양액재배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들이 회의참석과 같은 외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성들은 농사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환경농업실천 면에서 남편의 대외적인 지명도가 높으면 농가의 여성은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린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교육, 연수, 강의 등으로 집을 비우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는 지명도 있는 환경농업인의 아내가 말하는 하소연이다.

남편은 유기농업을 오래 해 와서 새농민상도 타고 환경농업단체일도 맡고 부락회장도 맡아 아주 바쁘지예.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실리고 하다 보니 환경농업교육도 자주 다니고 있고, 바깥으로 나다니고 회의하러 갈 때마다 하우스 일은 내 차지입니다. 일꾼도 사지만 요새는(최근에는) 우리 풋고추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 대체로 물량이 딸릴 정도입니다. 팔순 시어머니와 구순이신 큰어머니 까지 일을 거들고 계십니다. 잘 팔려서 좋지만 겨울에는 한달에 기름값이 300만원이 나갑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지칩니다(경남 진주 이00씨).

진주의 장00씨는 무농약 딸기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힘든 것은 병충해의 방제인데, 실패하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잡초 및 병충해를 제거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작업인데 고생에 비하여 경제적인 대가가 너무 적다고 하였다.

응애나 비리(진딧물)가 많으면 일반농가에서는 독한 농약을 치면 되지만 우리는 농약을 못쓰니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연초에도 흰가루병으로 하우스 2동은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 안치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비용과 노력은 관행농업에 비하여 솔직히 한 4배 정도가 더 든다고 봅니다. 병충해가 오면 남들이 200평 당 100상자 수확할 때 우리는 40상자 정도 밖에 못하니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딸기가 2Kg에 12,000원하는데 우리 무농약 딸기는 15,000원에 팔립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수확량이나 대가가 너무 적어 힘듭니다(경남 진주 장00씨).

소규모 다품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사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 가족노동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생산, 수확, 선별, 판매과정에서 모두 적지 않은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과중한 노동강도에도 노동력을 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한참 바쁠 때는 중국교포나 외국인을 일꾼으로 사서 쓰기도 한다. 농사를 25년 짓고, 환경농업을 한지 15년째인 경남 사천에 사는 여성농업인은 유기농업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기농업을 한다고 머리에 물을 이고 하우스로 나르고 풀을 뽑으면서 나는 죽도록 고생을 하다 너무 힘들어 현재 파리고추를 저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납니다. 작년 한해 농사는 완전 적자입니다. 1,200평을 재배하였는데 하우스 기름값도 부족한 형편입니다(경남 사천 000씨).

위의 사례 여성은 환경농업을 하는데 여성의 노동이 과중하며, 외지의 노동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죽도록 고생해도 대가가 너무 적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경우 환경농업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 이외에 가사노동도 해야 하는데, 만약 아이들이 어리거나 노인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의 부담은 배가 된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사례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 2) 판로문제

환경농가가 겪는 고충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판로 확보의 문제이다. 환경농산물의 판매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의 확보가 쉽지 않다. 환경농산물은 (주)새농이나 (주)내추럴 홀푸드와 같은 유통회사, 백화점, 농협과 같은 대형매장, 전자상거래나 생협을 통한 직거래, 전문매장으로 판매되고 일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한다<sup>2)</sup>. 유통회사나 대형매장을 통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것은 농가가 직접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생협을 통한 직거래인데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고 수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표 2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소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소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61.5%가 집중되어 있다.

경남 진주지역의 경우, 부산이나 창원 등 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농산물 판로 및 소비활성화

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한살림과 서울에 있는 한국유기농업협회로 올라가고 (주)새농과 같은 유기농산물유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부산·경남의 인구를 고려할 때, 원거리에 판매함으로써 부담하는 농가의 물류비용을 고려한다면 향후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수년간 환경농산물 판매처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품질인증을 획득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아도 판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환경농산물은 일반재래시장에서 관행농산물과 같이 취급되거나 심지어 더 싸게 팔리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판로를 확보해도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작년에 내가 마산 D백화점에 딸기를 내어봤는데 일본수출길이 막혀 2kg에 12,000원 할 때 10,000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매일 100박스를 대어 줘야하니 우리 집 말고 다른 농가 것도 10박스 20박스씩 포장해서 벨라고 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 길마저도 끊어버렸지요.(...) 농사지를 낫이 없고 참 이래도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뜻 같이 하자고 하기가 어렵습니다(경남 의령 강00씨).

위 사례의 경우는 정성들여 무농약재배를 하고 있

표 2.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 수

구분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생협		전문매장	합계
				지역단체	우리농		
서울수도권	63	60	65	31	14	85	318(61.5)
지방대도시	28	28	35	6	13	9	119(23.0)
지방중소도시	18	22	33	2	1	4	80(15.5)
계	109(21.1)	110(21.3)	133(25.7)	39(7.5)	28(5.4)	98(19.0)	517(100)

자료: 박현태 외, 1999.

지만 생산과 판로문제로 다른 농가에게 권할 자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 품목을 맡아서 심으면 전량 안 나갑니다. 받은 소비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시장에 나가면 맥을 못쳐요, 외관으로는 덜 좋아서. 버리지(벌레) 구멍도 더러 있고, 그거야 그렇고 전량 소비가 안돼요. 생산물을 처분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지요(경기 팔당 김00씨).

유통회사를 거치면, 유통마진 때문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 손해를 본다. 그리고 유통회사에 넘기고 남은 물건은 농산물시장에 가져가서 경매하는데, 농산물시장에서 경매할 때는 환경농산물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처럼 경매된다.

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 보다 많은 판매처에서 환경농산물을 취급하게 될 것이다. 다음 사례는 유통회사를 통한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곳(팔당)의 경우, 우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주)새농)를 거치니까 직거래보다 받는 단가도 낮고 소비자도 좀 더 비싸게 먹고 있는 셈이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체계가 잡히면 좀 나아 거예요(경기 팔당 장00씨).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통마진이나 조직유지를 위한 수수료 지불은 다시 유통망을 확보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생산자는 비싸게 팔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유통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방법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 아래 사례농가는 올해부터는 점차 직거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였다. 농가에서 판매하는 단가와 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나서 양자 다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홍수출하 때는 애써 지은 농산물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거래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수 출하 때는 버리는 게 반이예요. 그래서 올해는 소비자가 우리 농장에 와서 자기가 살 채소를 직접 수확해서 가져가게 하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같이 배추를 500원 600원에 넘기는 데 광주 모 백화점에서는 1,500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걸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딸기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긴 서울에서 1시간 내외로 올 수 있으니까 바람도 쏘일 겸 와서 직접 밭에서 딸기를 따서 담아가게 하고 있어요. 차비는 남게 하고 또 유기농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바로 다음 소비로 이어지더군요. 앞으로 점차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전문판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경기 팔당 장00씨).

### 3) 자녀교육문제

노동과 판로의 문제가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환경농가여성들은 자녀교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교육문제는 농촌의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적지 않은 노동강도로 인한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함 등을 들 수 있다.

…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다. 여성으로 힘든 점은 일이야 하면 되지만 농사를 짓다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다. 일이 많으니 아이 돌보는 일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된다(경북 상주 000씨).

경남 김해에서 콩과 야채, 쌀 등 2,000평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며 축산도 하는 여성농업인은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일 힘든 것은 아들 교육문제인데 고교 1명, 중학교 1명, 초등학교 1명 모두 세 명입니다. 고 2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은 급식이 안되니 도시락을 하루에 4개씩 씹니다. 초등학교생은 1km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여기는 외진 곳이라 학원차가 밤늦게까지 운행이 안됩니다. 밤 11시나 새벽 2시에 고 2 아

들을 차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경남 김해 박00씨).

#### 4)기타 문제

또한 경기 팔당의 한 유기재배 여성농업인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환경농산물의 재배기술이라고 하였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재배기술이 농가단위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는 이웃농가에서 환경농업자재를 사서 농사지었다니 농약이 검출되어 품질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어떤 병충해에 뭐가 좋다고 해도 자신들이 직접 겪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나. 귀농 농가여성의 고충

최근 들어 귀농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sup>3)</sup>, 귀농을 통해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관행농업보다는 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귀농 농가여성들이 당면한 고충을 살펴본다.

귀농한 경우에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영농자금의 부족이다. 대개 귀농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경작지를 구입 혹은 임대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관행농업으로 약해진 지력을 회복해야 하는 초기 시점에서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농사지식의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작목의 선택, 파종, 재배기술, 판로 등 농사에 관한 일들에 익숙하지 않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적은 수량의 생산이라도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농산물의 질이 관행농산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

... 도시에서 살다가 1999년 2월 귀농을 결정하고 3월에 이사하였다. 첫째 1,500평 친정아버지 땅에서 콩농사를 짓고 ... 텃밭 300평에 먹을 것을 심었다. 첫째는 농사에 까막눈이라 흉내만 내

고 ... 2000년도에 욕심을 내어 1,000평을 개간하고 남의 땅을 얻어 참깨 5가마, 논벼 15가마, 고추 2,000주를 심어 150-200근을 수확하고, 녹두, 팥 등 온갖 야채를 심었다. ... 7,500평 농사에 기계로 파종하면 3시간이면 되는데 손으로 하면 3-4일 이 걸린다. (...) 남녀간에 일이 틀리기 때문에 역할분담에서 부부간에 부딪히게 된다(경기도 파주 이00씨).

위 사례의 여성은 귀농에 성공한 경우인데, 귀농 초기 적응과정에서 친정아버지의 도움이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친척이나 이웃농가의 도움은 경작지의 구입이나 임대 및 농사작목의 선택 등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환경농업으로의 귀농이 어려운지는 위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로 파종하면 잠깐 끝낼 일을 손으로 3-4일 걸려 노동을 한다. 기존의 농민들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신념의 차이로 반감을 갖기 쉽다.

주위 농민들의 대다수가 관행농업을 하는 여건에서 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농사에 관한 정확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기 수확의 실패는 주위 농민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웃과 어울리며 농사경험을 나누고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려면 이웃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도시에서 배운 사람이 환경농업을 한다고 와서 농사를 짓는데, 초기에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경농업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웃농가와와의 관계 또한 초기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농자의 성공은 대개 이런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고, 초기에 잘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이웃농가에게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래 사례는 농촌생활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 시골에는 집안일 바깥일 구별이 없고, 남자 일 여자 일도 구별이 없다. (...) 그리고 물론 귀농한 사람들 사이나 기존의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마음 고생을 한다. (...) 원래 있던 주민



과 귀농한 사람들간의 알력도 있고 귀농해서 자리잡은 사람과 신참자간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하기도 한다(전북 진안 정00씨).

귀농에서도 자녀교육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농촌으로 전학을 오지 않는다면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아내가 도시출신이어서 농촌생활을 거부하거나 귀농을 반대한 경우에 귀농에 적응, 성공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부부가 환경농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특히 여성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농사일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다.

(...)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내게 하고 싶어서 귀농하였다. (...) 가사노동과 농사일로 힘들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 없어서 더 힘들다. 농사일이 바빠다 보니 사실 아이들은 친구가 없어 들만 놀고 특히 가까운 학교가 폐교가 되어 3Km되는 거리까지 가는데 학교 때는 통학버스가 고학년 위주로 되어 (부모 중) 한 명이 가서 아이를 태우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이들은)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며 논다. 그래서 귀농 당시 아이를 자연에서 키우겠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경북 상주 김00씨).

모든 농가가 겪는 공통적인 일이라는 하지만 역시 노동의 강도는 여성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서울에서 생활 할 때는 남편이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육아문제였고 친한 친구 만나 털어놓으면 기분이 풀어지는데, 여기(홍성) 와서는 그게 안되어요. (...) 남편은 일 욕심이 많아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이 노력해서 우리도 이제 땅도 조금 구입하였지요. 그러나 실제 밭일이라서 내가 맡는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지요. 남편이 최근에 새로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으려는 생각을 비추지만 나

는 그러자는 의사를 비추지 않았어요. 내 일이 많아질 게 뻔하잖아요. 지난 4년간 너무 일을 많이 하여 한번씩 앓아 누우면 사-나흘은 꼼짝도 못해요. 솔직히 요즘은 내가 마흔이 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이 걱정돼요(충남 홍성 오00씨).

상당수의 귀농자가 경작지 구입에 돈을 많이 사용한다. 경작지의 임대나 구입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이 상태에서 초기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빚을 지거나 탈농할 가능성이 높다.

... 만 2년 동안 귀농할 때 가져온 3천만 원을 다 썼다. 그러나 큰 부채는 없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경북 상주 김00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요소는 최소한의 경제력이다. 부부간에 동의가 없이 귀농한 경우에는 농촌에서의 노동강도,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 교육문제, 부부갈등 등으로 여성의 불만이 많아 극단적인 경우에 가족이 해체되거나 탈농할 가능성이 높다.

#### IV.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이 지속가능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인 농업생산에 따른 문제, 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매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은 기존 환경농업의 지원방안을 밝힌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부족과 고된 노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노동관련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여성농업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인정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

지 못해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으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기존의 여성농업인조차 탈농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지원책으로는 여성농업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인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여성노동가치의 평가는 여성관련법안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여성관련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농업·농촌기본법」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22조 3항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성 및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농촌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는 농촌여성에 관련된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이다. 또한 모법에 농촌여성에 대한 권리수혜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수립되기가 어렵다. 제도적으로는 「농업·농촌발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정책<sup>4)</sup>은 농가도우미제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영세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 정도뿐이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이다. 허미영(2003)은 의사결정권이 농사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sup>5)</sup>. 의사결정참여에 관한 기존의 조사를 보면, 농가여성 중 생활자금관리는 여성본인(42.5%)과 여성이 주도하는 비율(9.4%)을 합하여 약 52%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지만 가사활동부분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중요자금관리는 대부분 남성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농림부, 1999; 김이선, 1997). 그러나 정농회 회원농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가

더 많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성이 농업관련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형식적으로는 30%이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사례는 귀농한 여성의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이다.

농사일은 공동작업이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남편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되니 어떤 일을 할 때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요. (...) 농사를 지은 지 4년 되다보니 나도 일머리가 보이고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 내가 따라 가려니 이건 아닌데 살고 저주고 사는 게 바둑바둑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나을까 혼란스러워요(충남 홍성 오00씨).

이와 같이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면, 여성들의 농사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농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살펴 볼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은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준다는 의미뿐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나.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일본은 산업화한 결과로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0년 이후 여성을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식하고 근대적인 가족경영협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은 가족간에 농업노동에 관한 일종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족내에서 취업조건과 경영의 역할분담, 수익분배, 생활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가족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문서화한 것이다. 주로 경영주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한 것이 51%이고 그의 경영주와 배우자와 자녀와 그 배우자간에 체결하기도 한다.

가족경영협정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농업경영의 방침, 노동보수(일급, 월급), 노동시간, 휴일, 작업분담,

경영이양, 일급, 월급 이외의 수익의 배분과 경영이양에 관한 사항이다(農林水産省 農産園藝局, 2001)<sup>6)</sup>. 岩手縣의 사례농가에서 체결한 가족경영협정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이 협정은 경영주로서 남편과 파트너로서의 아내가 상호 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하여 근대적인 농업경영을 확립하여 경영을 안정시켜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양자는 자금계획, 작부면적, 시설도입, 취업조건정비, 농가생활개선 등을 협의할 때 상호 이해를 높여 결정한다.
- 제3조 영농, 생활계획의 구체적인 협정사항은 별지에 정한다. 별지에는 협정의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경영목표는 효율적인 경영, 노후계획은 건강하고 꿈이 있는 생활의 추진을 목표로 하며, 영농·생활계획은 부부간 협의·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매년 1월에는 1년간의 반성과 경영참가에 관하여 가족간에 대화한다. 취업협정에는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농작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장이나 단축을 할 수 있다. 하루의 작업예정과 외출예정은 아침에 의견을 교환한다. 휴일은 주당 2일이지만 그 빈도는 협의해서 결정한다(이 협정서는 평성 1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례 농가는 5통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협정체결부부와 체결당시에 입회한 농업개발보급센터소장, 江剋市農業委員會長, 江剋市農業課長 이 각각 1통씩 보유하고 있다(越智啓三, 2001: 59-60).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많은 농업노동 뿐만 아니라 농가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생산적 노동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육아 및 노부모 부양을 생산적인 노동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박민선, 2002).

일본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가족협정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농업단체인 (사)농산어촌여성·생활활

동지원협회는 농가여성이 가족협정을 맺을 경우, 자신의 농업노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립수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시정촌과 농협에서 출산과 육아기의 여성이 경영참가에 필요한 경영관리나 농업기술, 노동위생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모성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단위에서는 전국농협중앙회가 여성의 육아와 농업경영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정제도는 농가여성의 지위향상과 농가경영발전을 위한 유효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농업생산에서 여성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농가 내에서 이러한 경영협정을 맺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농촌의 여성농업인이 처한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경영자로서 주류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1999년 11월 「농어촌 남·여 공동참여추진 지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각종 지원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농업경영참여, 남녀공동참여사회형성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욕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지식습득을 위하여 학습회를 개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생산과 생활 양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中口光子外, 2001)<sup>7)</sup>.

## 2. 여성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확대

### 가. 농가도우미제도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시에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게는 출산도우미제를 통하여 출산전후 30일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의 80%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취업여성이 출산하면 3개월의 유급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농가도우미 제도는 도시취업여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지원이다. 서비스 기간도 30일이어서 일반 취업여성에게 3개월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것과는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직장여성과 마찬가지로 농가여성에게도 출산도우미제의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원하는 도우미제도의 영역은 출산관련 영역보다는 질병이 발병할 때이다. 질병이 생길 경우에 치료나 입원기간동안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 뿐만 아니라 집안의 경조사나 농작업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때 등 확대해서 적용되어야 농가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갑자기 개인적인 급한 불일이 생길 경우에도 연락만 하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 및 기간이 충분히 확대되어야만 여성농업인이 그들에 대한 지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정명채 외, 1999).

#### 나. 자녀보육 및 자녀교육서비스 지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여성농업인이 이농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자녀교육문제는 도시, 농촌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녀교육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의 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젊은 층의 경우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에는 도시에 비하여 유치원이나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만난 여성은 요즘도 하우스 농사일을 할 때 어린아이를 하우스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여성에게 육아 및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사일에 전념하기 어려워 여성의 심적인 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일본의 엔젤플랜처럼 농번기에 야간보육을 하거나, 계절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등학교 문

제가 대두된다. 현재 농촌에는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장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농사일을 하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귀농한 농가로 하여금 가족불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가 별거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자녀문제가 부부간에 해결 및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농하게 되거나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정지용 외, 2000).

마지막으로 자녀가 커서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에 들어간 경우인데, 이 시기가 되면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외비도 적지 않고 대학등록금이나 하숙비 부담이 적지 않아 농업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농촌출신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확대하고 기숙사의 사용 및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생하여 농사를 짓는 데도 불구하고 학자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성들의 농업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주어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이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고, 소수인원이라도 학교버스를 운행해서 등학교 때 통학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농촌출신자녀를 위한 기숙사제공, 등록금혜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의 시급성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성농업인센터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센터를 보육시설 및 방과후교실 등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율이 높은 편이며, 그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도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 없다(농림부, 2002).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추가적인 개소가 요구된다. 게다가 우리 나라 여성농업인 정책에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영농교육, 자녀보육, 자녀교육상담, 가족상담, 정보화교육, 건강향상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허미영, 200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영농과 관련된 서적과 인터넷 활용실뿐만 아니라 운동시설을 구비하여 영농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시점에서 여성농업인정책의 예산확보를 미루는 것은 앞으로 농업을 지탱할 주요 노동력의 확보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나아가 농가의 재생산에도 부정적이다.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 신념 면에서 상당한 고충은 감수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강도에 비하여 사회적 지원이 열악하면 결국은 환경농업을 등지고 쉬운 관행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탈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자들은 탈농의 문제를 단순한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라.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시스템도입

농사일의 경우에 쭉그리고 앉아 지속적으로 일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농부증, 관절염 등 농작업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농가여성의 경우에 농부증 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얻기가 쉽다. 우리나라의 환경농가들의 다수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방법에서 홍성의 문당마을 짬질방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홍성군 홍동면 문당마을에서는 환경농업교육관에 짬질방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정부는

마을 단위 짬질방을 설치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선 정기적인 건강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동동작연구를 통하여 신체에 주는 부담을 줄여야 하고 노동량을 경감할 수 있는 재배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질병 발생시에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허미영, 2002).

여성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겪게 되는 부담감을 완화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가사노동의 부담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부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고 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에서 여성이 농업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녀 모두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만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으므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3. 환경농업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조직의 지원

여성농업인이 환경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원네트워크가 여성농업인의 신념, 영농교육, 정보의 교환 등 영농 지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농회의 경우에 정기연수회나 지회모임,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작목별 분과위원회가 있다. 매년 초에 여성연수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농가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등을 나눈다.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 유기농을 해 온 여성의 신념과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여성들만의 경험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한다. 회원가입조건이 기독교신자인 것은 아니지만 정기총회에는 신앙강화시간을 통하여 정농정신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교육도 유기농업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귀농한지 7년인 여성농업인은 여성연수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제가 여성연수회모임이 정말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것은 대개 정농회 회원은 오래 전부터 농사를 하신 분이거나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 많지만 저는 귀농한지 7년 됐거든요, (...) 정농회 총회는 처음인데 지금까지 모든 모임이 남성들 위주로 진행되고 남성들은 교육을 받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 항상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항상 뒤처집니다. (...) 특히 귀농하면 억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교육이다 연수다 하면 농사일 다 제쳐두고 받으려가는데 여자들은 농사일하고 애보고 밥하는 것에 지쳐 차츰 남편과 격차가 나는 것이예요. 정농회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초창기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고 평생을 가도 한번 보기도 힘든 귀중한 분들이예요. 평생을 유기농하셨던 분들은 최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예요. 신귀남 할머니(74세)같은 분을 뵈고 유기농하신 산 경험을 들으면 내가 참 걸저리로 농사를 지었구나 배우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구요<sup>8)</sup>. 년 초에 1번 만나는 것이지만 1년 동안 힘든 일을 견디게 해 줍니다. 설사 남자들보다 교육받는 부분이 적더라도 남자들도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회(정농회)를 이끌어 갈 힘이 없다고 우리가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점이지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전북 진안 정00씨)<sup>9)</sup>.

귀농한 한 남성회원도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자들은 들어서 일하다가 한 사람(아내)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농사일이란 그래요. 일은 거들어주지 않아도 논두렁에서 말만 붙여줘도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정농회는 젊은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오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남성이 오면 다음에는 여성이 오고 그래서 여성이 마음놓고 재충전할 수 있게 남편이 말

놓고 다녀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충북 괴산 호00씨).

아래 두 사례는 어려움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여 준다. 삶나누기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조언 및 상담을 하며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권유로 여성연수회에 왔는데 저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힘겹게 설득해서 왔습니다. 저는 유기농하는 오빠의 권유로 풀무학교에서 1년 연수하다가 변산으로 갔는데 제 남편은 처음에는 유기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유기농으로 하자고 하여 바꾸었는데 (...) 요즘은 우리가 사는 곳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있다보니 처음에는 잘 어울리다가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하는 것을 곁에서 보는 데, 인간관계면에서 참 힘들어하는 면이 있어요(전북 부안 정00씨).

서울에서 살다 남편의 뜻대로 귀농해서 시골에 노는 땅은 모두 자기가 농사지를 땅이라고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일을 했어요. 양주에서 땅을 빌려서 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네 번이나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2-3년 묵어서 풀이 엄청난 밭에 불 싸지르고 갈아서 퇴비 넣어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밭 주인이 팔아버려서 어느 날 조립식 공장이 들어서고, 겨우 밭 만들어 놓으면 시멘트로 매립해서 다른 부지로 바꾸어 버리고 하니 이제기가 쥐기는 것 같아요. 농사일 같이 하다보면 남편과 많이 부딪혀요. 1년 농사지어 우리 식구 먹고 남은 것을 팔아 1년에 200만원이 전부예요(충남 홍성 안00씨).

위의 사례는 노동의 힘들 못지 않게 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관점의 차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대개 귀농한 젊은 부부들은 애들을 데리고 정농회 정기총회에 오기도 한다. 젊은 부부 중 한 남성은 연수회 기간동안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들을 연수회 기간동안 실행하면 교육이나 도움되는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매년 여성연수회에 참석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안일이나 농사일 사정에 따라 여성들이 지속해서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러한 모임에서 환경농업을 하는 동안 겪는 유사한 어려움을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또한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사자들에게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초작업이나 농작물 생산에서 병충해방제에 대한 농가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실질적인 도움도 얻는다.

또한 여성들만의 특별한 경험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2001년 첫 여성연수회에 참여했던 한 유기농가여성은 연수회에서 정보를 얻어 지역사회 여성농업인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유기농업과 관련된 도동교류를 프로그램화하여 마을전체를 도시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로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제공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육아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부부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부갈등이나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민간농업단체인 (사)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역시 네트워크화되어 각 지역에서 여성들을 도와준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농업단체에 속하지 않고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못한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나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가. 지속가능한 농업여성네트워크의 사례 -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국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 많은 연구센터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주로 토지기부대학으로 출범한 주립대학교의 부설로 설립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레오폴드 센터', 캘리포니아대학의 '지속가능한 농업연구교육프로그램', 워싱턴 주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자원센터', 네브라스카 대학의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위한 센터', 위스콘신 대학의 '농업발전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방대한 연구비로 각 지속가능한 농업영역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며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표 3. 미국 위스콘신주 지속가능한 농업네트워크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	지역 및 전국비영리조직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urches Center for Land and People</li> <li>· Madison Are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oalition</li> <li>· Michael Fields Agricultural Institute</li> <li>· Midwest Organic and Sustainable Education Services</li> <li>· Sustain Dane</li> <li>· Wisconsin Citizen Action</li> <li>· Wisconsin Rural Development Cen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nry A. Wallace Center</li> <li>·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li> <li>· National Camp American Farmland Trust</li> <li>· Center for Rural Affairs</li> <li>· Consortium for Sustainable Ag Research and Education</li> <li>· FoodFirst Cuban Agriculture Exchange aign for Sustainable Agriculture</li> <li>· Land Stewardship Projec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H. King Students of Sustainable Ag</li> <li>· Babcock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airy Research Center for Cooperatives</li> <li>· Center for Dairy Profitability Colleg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li> <li>· Emerging Ag Markets Team of UW Extension Land Tenure Center</li> <li>· Nutrient and Pest Management</li> <li>· Program on Agricultural Technology Studies</li> <li>· Steenbock Memorial Library Wisconsin Center for Dairy Research</li> <li>· Wisconsin Foodshed Research Project</li> </ul>

자료: <http://www.ag.uiuc.edu/~farnswor/>

세미나, 연수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는 많은 지속가능한 농업조직과 약 30여 개의 지속가능한 농민단체들이 있다. 표 3은 위스콘신의 지속가능한 농업조직을 나타낸다. 농민단체인 파머 투 파머(farmer to farmer)네트워크는 공적인 현지조사와 워크샵을 지원하며 회원농민의 농장을 참관찰하면서 농사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하거나 농업의 경제성과 생산과 삶의 질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 폭넓은 의사를 교환하고 있다. 그들은 농민에게 위스콘신대학의 연구자와 외래교수,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여성농민단체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위스콘신 여성 농업네트워크'(Wisconsin Women's Sustainable Farming Network: WWSFN)는 지속가능한 '서 위스콘신농업네트워크'(Western Wisconsin Sustainable Farming Network)에 참여했던 여성농민이 조직화한 여성네트워크이다. 이 조직은 여성농민인 Diane가 지속가능한 농업네트워크 이벤트에 참가하다가 다른 여성들이 이런 실질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농민만을 위한 워크샵을 시작한 것이 이 조직의 시발점이 되었다. WWSFN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지식을 교환하고, 성관련 이슈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이 독자적인 생산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하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네트워크는 농민이 전문가라는 가정하에 생산, 유통, 가공, 농장안전, 삶의 질, 여성적 이슈,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에 경험한 농업지식이 사회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여성들은 농업 전문가적 입장, 개인적인 삶의 질의 향상, 환경의식에 관한 신념의 공고화 등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회원에게도 정기적인 뉴스레터로 소식을 전해준다. WWSFN은 회원농장을 방문하거나 함께 일하거나 하는 현지조사도 겸하고 있다. WWSFN은 다른 농업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있기를 거부하며,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경험에 바탕으로 한

분리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WWSFN의 회원은 서로의 지식이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의 비가시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성-차별적인 요소를 밝혀내고 역할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Hassanein, 1999:142).

WWSFN은 사회적 문제 특히 여성농민이 직면하는 방해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교환하고,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에게 확산과 고무, 에너지, 힘 등을 준다. 다른 회원으로부터 성-차별적인 것과 기술적 정보를 배울 기회를 얻으며, 자신들이 농가주부라기보다 농민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들은 농가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꽃을 유기재배하는 농가여성에게 일년생과 다년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병해충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꽃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소비자에게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나눈다. 모두가 직접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회원들은 지역에 기반한 푸드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파머스 마켓이나 농업인 상가, 자연식품점, 생협, 농업박람회 등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며, 관행농업에서 발전된 장거리 이동판매를 최소화하려 한다(Hassanein, 1999:152).

WWSFN은 지속가능한 농업프로그램의 연구기금을 받아서 1993년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말에 긴 시간동안 컨퍼런스를 열고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게 하고, 개인적인 농업지식을 개발하게 한다. WWSFN을 통하여 여성농민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농업에 바탕을 둔 유기적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보 및 힘을 얻는다. 이들은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성들은 여성농민자신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던 것을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적인 농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아직 미미한 정도이지만 공적기구나 민간환경농업단체의 농가여성들만을 위



한 자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난관에 부딪혀 좌절할 수 있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기존의 관행농업은 환경오염과 식품안전문제 등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환경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러나 환경농업의 실천은 기존의 관행농업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에 뒤따른다. 환경농업의 경우 생산과정이 관행농업과는 달라 더 많은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알아보고 환경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행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보면, 환경농가 여성농업인들은 환경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농산물 판로문제 그리고 환경농업자재제조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여성으로서 노동력의 부족과 고된 노동강도,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중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노동력 부족과 고된 노동강도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농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평가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즉 농가도우미제도, 자녀보육 및 자녀교육서비스,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농사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의식차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함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사례처럼 여성들만의 경험은 남성과는 다르므로 이

들의 경험하는 지식이나 여성적인 특성이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고유하고 그들만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다른 여성농업인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특히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 환경농업의 성공여부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농업단체들은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 확대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주

- 1) 이 여성은 남편이 유기농업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생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 2) 국내 대기업들이 유기농산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풀무원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양곡, 채소, 과일, 건강보조식품 울가를, 삼양사는 유기농전문점으로 현대배화점 미아점에는 구텐모르겐 1호점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쌀, 현미, 잡곡 등 국산 유기농 곡류에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 직수입한 찰수수류, 과자, 파스타 등 고품질의 종합 유기가공식품을 직영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타워팰리스에 스타슈퍼를 개점하고, 전세계의 유명가공식품을 총망라한 970평 규모의 유기농 명품을 판매한다. 이들 대기업의 유기농유통시장 참여로 향후 우리 나라 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농업, 2003. 2).
- 3)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실시하는 생태적 농사짓기의 교육과정은 귀농을 단순히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에 두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귀농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만 귀농 교육을 받고 실제 귀농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귀농운동본부에서 2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지금 농사짓고 있는 인원은 약 16명 정도이다. 전국 귀농자 실태와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정지웅 외(2000)을 참고할 것.

- 4)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영옥 외 (2000)을 참고할 것.
- 5) 농업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근래에는 여성들의 이농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자신이 농사일에 만족감을 가지는 것은 영농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의사결정권이 높을수록 농사일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농사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을 높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6) 일본농가에서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농가수는 1998년 9,947호에서 1999년 12,030호로 증가하였다. 부인·생활과(2001)에서 1999년11월에 지역 농업개발보급센타의 협조로 실시한 [여성농업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일본의 여성농업인이 받는 보수와 급여의 취득현황은 '매월 받는다'가 43%,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가 24%로 나타났다(中口光子 外, 2001: 11).
- 7) 이러한 업무는 평성 12년-16년(2000년-2004년)까지 계속되며 이 일의 담당은 경영국 여성·취농과에서 한다.
- 8) 신귀남씨는 정농회창립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해 온 회원으로 고령임에도 연수회 때 참석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유기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등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을 들려주기 때문에 여성회원들이 아주 좋아한다.
- 9)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지속가능한 농업네트워크 회원농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연구는 여성은 그들 가족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수록 일은 많고 돈은 없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체 농장을 유기농업을 하는 남편을 둔 여성은 농장전체를 항상 실험적으로 운영하므로 끊임없는 시도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나라에도 적용된다.

## 인용 문헌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2.
2. 김영옥, 양승주. 1999.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위탁과제
3.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4. 김종덕. 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제12집 1호.
5. 농림부. 1999. "여성농업인실태조사용역연구"
6. 박민선. 2002. "일본가족경영협정의 현황과 의의". 『농협경제연구』, 제26집
7. 박현태, 강창용, 정은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방향". 한국농촌사회연구원
8. 이호철, 최수영, 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제12집 1호.
9. 정명채, 박대식. 1999.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0. 정지웅, 김지자, 류태영. 2000. "귀농자들의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11. 통계청. 2002. "2002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12. 허미영. 2002. "환경농업과 여성노동".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13. \_\_\_\_\_ 2003. "한국환경농가여성의 농사일만족도".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표발표논문. 환경농업, 2003, 2
14. 中口光子 外. 2001. 「パートナーシップ 經營をめざして - 家族經營協定推進のために-」. 社団法人 農山漁村女生活活動支援協會
15. 越智啓三 外. 2001. 農家女性の 經濟的 地位の 向上を るための 家族營協定締結結果に 關する

- 調査事業. 農村生活総合研究センター-農林水産省  
農産園藝局. 2001. 1999. 「家族經營協定農家に  
關する 實態調査」 <http://www.weli.or.jp>.
16. Baker, Lauren. 1999. "A Different Tomato:  
Creating Vernacular Foodscapes". Ed Deborah  
Barndt. *Women Working The NAFTA Food  
Chain*. Toronto: Second Story Press
17. Beus, Curtis, and Dunlap Riley E., 1990.  
"Conventional versus Alternative Agriculture:  
The Paradigmatic of the Debate." *Rural  
Sociology*, 55(4): 590-616.
18. Beus, Curtis, Dunlap Riley E., 1991. "Measuring  
Adherence to Alternative VS Conventional  
Agriculture paradigms". *Rural Sociology*, 56:432-  
60.
19. Chiappe, M. B., and C. Flora. 1998. "Gendered  
Elements of the Alternative Agriculture  
Paradigm." *Rural Sociology*, 49:183-209.
20. Chiappe, M. B., 1994. Women in Sustainable  
Agriculture: A study of Minnesota Family  
Farms, Ph. D.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21. Colman, Gould & Sarah Ebert. 1984. "Farming  
Families: The Farm Needs Everyone." *Research  
in Rural Sociology and Development* 1: 61-78.
22. Fink, Deborah 1986. *Open Country Iowa: Rural  
Women Tradition and Change*. Albany, NY:  
State University and New York Press.
23. Hassnein, Neva. 1999. *Changing the Way  
America Farms , Knowledge and Community in  
the Sustainable Agriculture Movement*, the  
University of Nebraska
24. Jellison, Katherine. 1993. *Entitled to Power:  
Farm Women and Technology, 1913-1963*.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5. Maria Mies & Vandana Shiva 저, 손덕수 역,  
200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6. Peter Gregory, Bell Michael Mayerfeld, Jamagin  
Susan, & Baner Donna. 2000. "Coming Back  
Across the Fence: Masculinity and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Agriculture", *Rural  
Sociology*, 65(2): 215-233.
27. <http://www.ag.uiuc.edu/~farnswor/>
28. <http://www.sare.org/>
29. <http://www.weli.or.jp>.
30. <http://www.wisc.edu>